

Minju Park



Male, 1997 (28 years old)

pmj970@naver.com (+82)10-2573-6680

307-602, 21 SangsinHagil-ro 328beon-gil, Hyangnam-eup, Hwaseong-si, Gyeonggi-do 18606, Republic of Korea

<https://mayorisugerhashida166knife.blogspot.com/>

Education	Education	Work Experience	Desired Salary	Portfolio
Major Sunmoon Uni.(Asan)	Japanese Language & Studies Computer Engineering	-None	In accordance with company policy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악마_박...pdf 미야자와 겐지_주문이 많은 ...pdf

Entry-level **Korean–Japanese Localization Specialist** with practical experience in translation, subtitling, and audiovisual content adaptation. Skilled in CAT tools (OmegaT, SmartCAT) and subtitle editing (Subtitle Edit), ensuring linguistic accuracy and cultural appropriateness. Capable of delivering high-quality localized content tailored to target audiences across media platforms.

Core Skills

- Korean ↔ Japanese **Localization & Translation**
- **Subtitle Creation & Editing (SRT)**
- CAT Tools: OmegaT, SmartCAT
- Basic **LQA (Linguistic Quality Assurance)**
- Audiovisual Localization (Subtitling & Dubbing Support)
- Cross-cultural Communication

Education	Hwaseong High School	Graduated Mar 2013 - Feb 2016
Baccalauréat	Humanities Track	

Sunmoon University (Asan) — B.A. (Graduated)	Graduated Mar 2016 – Aug 2025
Major Japanese Language & Japanese Studies	
Double Major	Computer Engineering
GPA	2.47/4.5

Certifications	(New)JLPT (N1/PASS)	2026.01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New)JLPT (N1/PASS)	2023.08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Korea Class 1 Driver's License — Final Pass	2015.12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Portfolio

[아쿠타카와 류노스케_악마_박민주.pdf](#) (Ryunosuke Akutagawa – “The Devil” (Literary Localization, JP -> KO)

Project period	2026.03.02~2026.03.06
Tool	OmegaT
Description	“The Devil” opens with the narrator recounting the story of the missionary Urugan. Known for his blue eyes that have witnessed many devils, he tells an episode involving a young noblewoman in Kyoto favored by Oda Nobunaga and a devil, exploring themes of good and evil and the nature of sin. - Localized literary content with a focus on narrative tone and cultural nuance - Ensured semantic accuracy while adapting expressions for natural readability

Portfolio

[미야자와 겐지_주문이 많은 요리점_박민주.pdf](#) (Kenji Miyazawa – “The Restaurant of Many Orders” Literary Localization JP -> KO

Project period	2026.03.17~2026.03.20
Tool	OmegaT
Description	Kenji Miyazawa’s Ihatov fairy tale “The Restaurant of Many Orders” is a mysterious story about two young gentlemen set in the early 19th century. It portrays the strange events that befall two men—arrogant and foolish, yet extravagant and trend-following—who imitate the “high and mighty” and Western powers. - Applied consistent tone and style across the text - Adapted culturally specific expressions for target-language audiences

* Downloading attachments may be available only to corporate members on Saramin, and public disclosure between individuals may be restricted.

朴 旻主 (パク・ミンジュ)



朴 民主 (パク・ミンジュ)

pmj970@naver.com

(+82)10-2573-6680

307-602, 21 SangsinHagil-ro 328beon-gil, Hyangnam-eup, Hwa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8606)

<https://mayorisugerhashida166knife.blogspot.com/>

学歴	専攻	職務経験	希望年収	ポートフォリオ
善文大学校 (牙山) (4 年制)	日本語・日本学科 コンピュータ工学部	-なし	社内規定に準ずる	아쿠타카와 료노스케_악마_박...pdf 미야자와 겐지_주문이 많은 ...pdf

韓日（韓国語⇔日本語）翻訳、簡単な通訳、映像ローカライズ（字幕・吹替周辺業務）に関する実務経験を有する新卒人材です。CAT ツール（OmegaT、SmartCAT）および字幕編集（Subtitle Edit）を活用し、効率と品質を両立した制作が可能です。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支援や、ターゲット市場の慣習に沿った表現調整に強みがあります。

スキル・強み

- 韓国語⇔日本語 ローカライズ／翻訳
- 字幕制作・編集（SRT 形式対応）
- CAT ツール（OmegaT、SmartCAT）
- LQA（言語品質チェック・基礎）
- 映像ローカライズ（字幕・吹替支援）
-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学歴	華城高等学校(ファソン高校)	2013.03 ~ 2016.02
大学 4 年制卒業	文系	

鮮文大學校 (ソンモン大学) (牙山 (アサン市) (4年制)	2016.03 ~ 2025.08
日本語・日本学科	
複数専攻	コンピュータ工学部
成績	2.47/4.5

資格 / 語学	(新) JLPT (N1/PASS)	2026.01
	国際交流基金	
	公益財団法人日本国際教育支援協会	

(新) JLPT (N1/PASS)	2023.08
国際交流基金	
公益財団法人日本国際教育支援協会	

普通自動車第一種免許	2015.12
韓国警察庁(運転免許試験監理団)	

ローカライズ実績

ポートフォリオ(日->韓)

芥川龍之介「悪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악마 박민주.pdf](#))

期間	2026.03.02~2026.03.06
使用ツール	OmegaT
紹介	「悪魔」は、語り手が読者に宣教師ウルガンの物語を語るところから始まる。 青い瞳で多くの悪魔を見てきたという彼が、ある日、織田信長に気に入られた 京都の令嬢と悪魔を見たという逸話を中心に、善悪や罪について語っていく作 品である。 ● 文体・ニュアンスを維持しながら自然な日本語へ最適化 ● 文化的背景を考慮した表現調整を実施

ポートフォリオ(日->韓)

宮沢賢治「注文の多い料理店」 ([미야자와 겐지 주문이 많은 요리점 박민주.pdf](#))

期間	2026.03.17~2026.03.20
使用ツール	OmegaT
紹介	宮沢賢治のイーハトーブ童話「注文の多い料理店」は、19世紀初頭を舞台に、 二人の若旦那に起こる奇妙な出来事を描いた物語である。傲慢で愚鈍でありな がら放蕩で流行に追随し、「お偉方」や西洋列強を真似る二人に降りかかる不 思議な出来事が語られる。 ● 作品のトーンを統一し、可読性を重視した翻訳を実施 ● 日本語特有の表現に適したローカライズ対応

※ 添付ファイルのダウンロードはサラミンの企業会員のみ可能であり、個人間で
の公開は制限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박민주

남, 1997 (28 세)

pmj970@naver.com (+82)10-2573-6680
(18606)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328 번길 21 307-602
<https://mayorisugerhashida166knife.blogspot.com/>



학력	전공	업무경험	희망연봉	포트폴리오
대학교(4 년) 졸업 전문대학교(아산)	일어일본학과 컴퓨터공학부	-	회사내규에 따름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악마_박...pdf 미야자와 겐지_주문이 많은 ...pdf

한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했으며, 대학생 시절 유학생 커뮤니티와의 일상 회화부터 번역, 간단한 통역을 했으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OmegaT, SmartCAT 과 같은 CAT Tool 과 Subtitle Edit 등 번역 및 자막 편집 툴을 활용한 실무 역량을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더빙 및 자막 제작 경험을 통해 영상 콘텐츠의 현지화 작업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적 감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디어 환경과 각 나라 문화에 걸맞는 로컬라이징을 위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으로서의 열정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언어와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가치를 창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번역, 통역, 더빙 등 언어 관련 업무 전반에서 높은 책임감과 꼼꼼함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겠습니다.

나의 스킬

한국어	일본어	번역	일상회화	CAT Tool	Subtitle Edit	통역	더빙
-----	-----	----	------	----------	---------------	----	----

학력	화성고등학교	2013.03 ~ 2016.02 (졸업)
대학교 4 년졸업	문과계열	

전문대학교 (아산) (4 년제)	2016.03 ~ 2025.08 (졸업)
일어일본학과	
복수전공	컴퓨터공학부
학점	2.47/4.5

자격/어학/수상	(新) JLPT (N1 급/PASS)	2026.01
	일본어	

(新) JLPT (N1 급/PASS)	2023.08
일본어	

1종보통운전면허 (최종합격)	2015.12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포트폴리오 및
기타문서

포트폴리오

[아쿠타카와 류노스케_악마_박민주.pdf](#)

작업기간	2026.03.02~2026.03.06
작업인원	1 명
작업 툴	OmegaT
작업내용	"악마"는 화자가 독자에게 선교자 우루간 이야기를 전해주며 시작한다. 그의 파란 눈동자는 여러 악마를 봐왔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오다 노부나가 의 마음에 든 교토의 한 영애와 악마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악 과 죄악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포트폴리오

[미야자와 겐지_주문이 많은 요리점_박민주.pdf](#)

작업기간	2026.03.17~2026.03.20
작업인원	1 명
작업 툴	OmegaT
작업내용	미야나가 겐지의 이하토브 동화 "주문이 많은 요리점"은 19 세기 초를 배경 으로 한 어느 두 도련님들의 기묘한 이야기이다. 오만하며 우둔 하지만 방탕하고 유행을 따르며 "높으신 분"들과 서양의 열강을 흥내내는 두 사람에 게 찾아온 기묘한 이야기.

* 첨부파일 다운로드는 사람인 기업회원만 가능하며 개인간 공개는 제한됩니다.

주문이 많은 요리점
미야자와 겐지

영국 병사 같은 모습을 한 두 젊은 신사가 반짝이는 총을 매고, 백곰 같은 개를 두 마리 데리고, 깊은 산 속 나뭇잎이 바스락 거리는 곳을 걸으며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은 이상한 걸. 새도 동물도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 뭐라도 좋으니까 탕! 타앙! 쏘고 싶은데 말이야."
"사슴 몸에 두 세발 맞추면, 기분 좋을텐데 말이지. 빙글빙글 돌다가, 그대로 툭 쓰러질텐데."

정말로 산 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안내하러 온 사냥꾼도 조금 헤메다가, 어디론가로 사라질 정도의 깊은 산 속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산 속이 엄청 으스스 해서, 백곰처럼 듩직한 개들마저 모두 어지러워하다, 곧 짖어대더니, 거품을 물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천4백 엔 손해 봤네." 하고 신사 한 명이 개의 눈꺼풀을 조금 올려보며 말했어요.
"나는 2천8백 엔 손해야." 하고, 한명이 분한 듯 머리를 숙여 말했어요.

한 신사가, 얼굴을 찌푸리고, 지긋이 다른 신사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난 이만 돌아가려고 해." "그럼, 나도 조금 쭉기도 하고 배도 고프니까 돌아갈까."
"그럼, 이만하고 가자. 돌아가서, 어제 묵은 숙소에서 산새라도 사서 돌아가면 되겠지."
"토끼라도 있으면 좋겠네. 그거나 이거나 같지만 말야. 그럼 돌아갈까."

그런데, 어찌해도 곤란한 일은, 어디로 가야 돌아갈 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풀 소리도 스르륵, 나뭇잎이 바스락바스락, 나무는 쿵, 쿵, 소리가 났습니다.

"어찌됐든 배가 고파졌어. 아까부터 옆구리가 아파서 참을 수 없어."
"나도 그래. 이젠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아."
"그만 걷고 싶어. 곤란한 걸, 뭐라도 먹고 싶어."
"뭐라도 먹고 싶네."

두 신사는 수군대는 억새풀 숲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문득 뒤를 보니, 웅장한 양옥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는,

RESTAURANT
서양요리점
WILDCAT HOUSE
산고양이집

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이봐, 마침 잘 됐어. 여긴 이렇게 열려 있는 곳도 있네. 들어가자고."
"어라, 이런 곳에 수상한데. 그래도 아무튼 간에 뭐라도 먹을 수 있겠지."
"아무렴 그렇겠지. 간판에 그렇게 써 있잖아."
"들어가볼까. 뭐라도 먹지 않으면 난 쓰러질 거 같아." 두 사람은 현관에 들어갔습니다.

하얀 도자기 벽돌로 꾸며져 있는 현관은 정말 근사했습니다.
그리고 유리로 된 미닫이문에 금색으로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들어와주세요. 결코 사양하는 일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읽고서는 굉장히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사는 거지. 역시 좋은 세상이라니깐. 이봐, 오늘은 일진이 나뻐지만, 이번에는 이렇게나 좋은 일도 생기는 법이라고. 여기는 돈 한 푼 안 받고 대접하는 거 같은데?"
"아마 그런 거 같아. 결코 사양하는 일은 없습니다라니, 그런 의미겠지."

두 사람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복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유리문 뒤편에는, 금색 글자로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특히 살집이 좋은 분이나, 젊은 분은 대환영입니다."

두 사람은 대환영한다며, 더 기뻐했습니다.

"이봐, 우리들을 대환영한다고 하잖아." "우리는 둘 다 모두 그러니까 말야."

복도를 나아가보니, 이번에는 하늘색 페인트가 칠해진 문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곳이군. 왜 이렇게나 문이 많은 걸까."
"이건 러시아 풍인데. 추운 곳이나 산 속 마을은 다 이렇다고."

이윽고 두 사람이 문을 열려고 하자, 위쪽에 노란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주문이 많은 가게 입니다. 부디 이 점 양해해주세요."

"꽤 잘 나가는 거 같네. 이 산중에 말야."
"그러게 말이야. 보라고, 도쿄에 있는 번화가라 해도 이렇게 큰 요리점은 흔치 않을걸?"

두 사람은 수군거리며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편에,

"주문이 꽤나 많습시다만, 부디 양해해주시요."
"이건 당최 무슨 소리일까." 한 신사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음, 이건 분명 주문이 너무 많아서 준비가 번거로우니 죄송하다는 거 같군."
"그렇군. 어서 무슨 방이든지 들어가고 싶은데 말이지."
"그리고 테이블에 앉고 싶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울이 걸려 있었는데, 그 밑에 긴 자루가 달린 머리빗이 놓여있었습니다.

문에 붉은 글씨로,

"손님, 여기에서 머리를 정돈하시고, 옷의 먼지를 털어 주십시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본격적인걸. 아까 현관에서 나는 속으로 이런 산동네에 있는 가게라고 생각해서 얄잡아 봤었는데 말이야."

"예절 작법이 까다로운 가게군. 분명 엄청 높으신 분들이 자주 오는 곳인가 봐." 두 사람은 머리를 깨끗이 정돈하고, 구두에 묻은 흙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인지요. 머리빗을 선반에 놓자마자 형체도 없이 사라지더니,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서로 기대서 문을 콧 열고 다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뭐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 녹초가 될 거라고 둘은 생각했습니다.

문 안쪽에, 또 이상한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총과 총알은 이 곳에 놔두세요." 옆을 보니 검은색으로 된 선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총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지."

"글세,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란 거 같은데." 두 사람은 총을 빼서 가죽 띠를 풀고 선반 위에 두었습니다.

또 다시 검은 문이 있었습니다.

"부디 모자와 외투, 신발을 벗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 벗을까?"

"어쩔 수 없지. 벗자고. 보아하니 정말 위 분들이신 것 같군. 안에 와 있는 사람은 말이야."

두 사람은 모자와 긴 외투를 못에 걸고, 신발을 벗어 두고 사뿐사뿐 문 안에 들어왔습니다.

문의 뒷편에는,

"넥타이핀, 소매 단추, 안경, 지갑, 그 외 금속류,

특히 뾰족한 물건은, 모두 이 곳에 놔두십시오." 문 옆에, 검은색으로 칠한 튼튼한 금고가, 입이 열려 있었습니다. 열쇠도 옆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하, 여기 요리는 전기를 쓰는 모양이군. 금속으로 된 물건은 위험하지. 특히 뾰족한 건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그렇군. 보아하니 계산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거 같아."

"그렇지? 분명히." 두 사람은 안경을 벗고, 소매 단추를 풀고, 모두 금고에 넣고, 확실히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조금 걸으니 또 문이 있었는데, 그 앞에 유리로 된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 있는 크림을 얼굴과 손발에 빈틈없이 발라 주십시오." 잘 보니, 분명 항아리 안에 우유로 만든 크림이 있었습니다.

"크림을 바르라니 무슨 소리지?"

"이건 말이지. 밖의 날씨는 엄청나게 추웠잖아? 방 안이 충분히 따뜻하면 살이 터버리니까, 그 대책인거야. 분명 안 쪽에는, 엄청나게 위에 계신 분이 계시겠지. 이런 외진 곳인데 우리 어쩌면 귀족을 만날지도 모르겠는걸."

두 사람은 항아리 안에 있는 크림을 얼굴과 손에 바르고, 양말도 벗어 발에도 발랐습니다.

그래도 크림이 아직 남아서, 두 사람은 몰래 얼굴에 바르는 척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 뒤에 급하게 문을 열어보니, 그 뒷편에는

"크림을 잘 바르셨습니까? 귀에도 잘 바르셨습니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림이 들어 있는 작은 향아리가 여기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 귀에 바르지 않았었군. 무심코 귀에 흥이 질 뻔 했군. 여기 주인장은 정말로 용의주도한데?"

"그래, 세심하기도 하지. 근데, 난 이제 빨리 뭐든 먹고 싶은데. 계속 복도에만 있으니 안절부절하게 되는군." 그렇게 걷고 있으니, 곧 그 앞에 문이 있었습니다.

"요리는 이제 곧 나갑니다.

15분 정도면 나갑니다.

이제 곧 먹을 수 있습니다.

어서, 당신의 머리에 병 속의 향수를 뿌려 주십시오." 문 앞에는 금박이가 된 향수병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향수를 머리에 치덕치덕 뿌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향수에서 식초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향수는 이상하게 신내가 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실수했나보군. 하녀가 감기라도 걸려서 실수한 걸 거야." 두 사람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문 안쪽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주문이 많은 점, 번거로우셨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만 하면 됩니다. 부디, 몸 안에 향아리 속 소금을 잔뜩 넣어주십시오."

정말 훌륭한 파란 도자기로 만든 소금 향아리가 놓여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도 깜짝 놀라 서로 크림을 잔뜩 바른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주문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저 쪽이 우리에게 주문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식 요리점은, 내가 생각하기론, 양식을, 온 사람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온 사람을 양식으로 만들어서 먹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건, 그게, 그, 그, 그 말은, 우, 우, 우리들이....." 덜덜덜덜, 떨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으악." 덜덜덜덜, 떨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망....." 덜덜 떨면서 한 신사가 뒷문을 밀려고 했지만, 어찌 된 일 일까요.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쪽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는데, 커다란 구멍이 두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은색 포크와 나이프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하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맛있게 만들어졌네요.

자아자아, 뱃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쇠 구멍으로 새파란 눈동자가 이 곳을 힐끗힐끗 엿보고 있었습니다.

"으악!" 덜덜덜덜

"으악!" 덜덜덜덜

두 사람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문 안쪽에서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안되겠군. 눈치채버렸어. 소금을 넣으려고 하지 않는 거 같은데."

"당연하지. 두목 글숨씨가 나뻐다고. 저 쪽에 주문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귀찮아하잖아. 정말 죄송합니다라니, 깔보는 말을 써버렸어."

"상관없잖아. 어차피 우리한테는 뼈도 주지 않을 거잖아."

"그건 그렇지. 그래도 저 녀석들이 여기 오지 않으면, 우리 책임이 된다고."

"우리가 부를까? 부르자. 어이, 손님.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접시도 깨끗하게 해냈고, 푸성귀도 소금에 문대 났습니다요. 이제 여러분과, 잎을 잘 싸서 새하얀 접시에 올리면 끝납니다. 어서 빨리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면 샐러드는 싫어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워드릴까요? 불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나머지, 얼굴이 꾸깃꾸깃해진 종이 같이 되어, 서로 얼굴을 보며, 덜덜 떨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안에서는 훗훗 하며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울면 잘 바른 크림이 녹아버리잖습니까! 자, 여기로 오세요. 곧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어서 빨리 오세요!"

"어서 빨리 오세요! 주인장이 이젠 냅킨을 목에 걸고, 나이프를 들고 혀를 내두르며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울고 불고 울고 울고 울었습니다.

그 때 뒤에서 갑자기,

"멍! 멍! 으르르!"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 백곰 같은 개 두마리가, 문을 부수고 방에 날아 들었습니다. 열쇠구멍 속 눈동자가 흑 사라지고, 개들이 방 안을 빙빙 돌면서 헤집다가, 다시 "멍!" 하고 크게 짖으며, 갑자기 다음 문에 뛰어 들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개들은 마치 빨려 들어가는 마냥 날아 갔습니다.

그 문 넘어 새까만 어둠 속에서,

"냐아앙! 카아악! 그릉그릉." 하는 소리가 나고,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이 연기 같이 사라지고, 두 사람은 추위에 벌벌 떨며, 풀 속에 서있었습니다.

잘 보니, 외투나 신발, 지갑과 넥타이 핀이 저 쪽 가지에 널려 있거나, 이 쪽 뿌리 근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풀 소리도 스르륵, 나뭇잎이 바스락바스락, 나무는 쿵, 쿵, 소리가 났습니다.

개가 건강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뒤에서,

"나리이이...! 나리이이..."하며 누가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번뜩 정신을 차리고,

"어이! 어이! 이 쪽이야! 빨리 와줘!" 하고 소리쳤습니다.

도롱이를 쓴 전문 사냥꾼이, 풀을 헤치며 다가왔습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이 가져온 경단을 먹으며, 가는 길에 10엔으로 산새를 사서 도쿄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구겨진 종이 같은 얼굴만은, 도쿄에 돌아와서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답니다.

1997 (헤이세이9) 년 5월10일17쇄

초간 : 「이하토브 동화 주문이 많은 요리점」모리오카시 사능 출판부·도쿄 월원사사(도쿄 코엔샤)

1924 (다이쇼13) 년12월1일

입력 : 土屋隆

校正 : noriko saito

2005년1월26일 작성

아오조라 문고 작성 프로필 :

이 파일은, 인터넷 도서관, 아오조라 문고(靑空文庫) (<http://www.aozora.gr.jp/>) 에서 만들었습니다. 입력, 교정, 제작해주신 분들은, 봉사자 여러분입니다.

번역 : 박민주 (pmj970@gmail.com)

미야자와 겐지의 "주문이 많은 요리점"은 그의 자비로 낸, 이하토브 동화라는 부제를 단 동화이다. 이하토브는 그의 고향 이와테 현을 에스페란토화(읽기 쉽게 표기를 재구성) 한 것으로, 그의 이상향 세계 이름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부터 고난한 삶을 살았으나 사회관이나 주관이 뚜렷했던 그는 소설가이자 사회 운동가였다. "주문이 많은 요리점"을 비롯하여 그의 소설에는 시대를 꼬집기도 하고 어루달래기도 하는데, 어떤 소설도 엄하면서도 다정함이 묻어나온다. 2000년에 조사한 "아사히 신문 선전 지난 1천년간 일본의 최고의 문인"에서 4번째에 꼽힐 정도로 미야자와 겐지는 일본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악마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바테렌 우루간의 눈동자는, 다른 사람은 보지 못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듯 하다. 특히, 인간을 유혹하는 지옥의 악마같은 것은 뚜렷하게 보였다고 한다.

——우루간의 푸른 눈동자를 사람들은 모두 정말 그렇게 믿고 있던 모양이다. 적어도 남만사의 데우스 여재를 예배하는 봉교인 사이에서는, 그걸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여기는 듯 했다.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우루간은 오다 노부나가에게 자신이 교토 거리에서 본 악마의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그것은 인간의 얼굴을 했으나 박쥐에 날개를 달고 산양 다리를 달고 있는 작지만 기묘한 동물이라고. 우루간은 이 악마를 때로는 탑의 구륜 위에서 손뼉을 치며 춤을 추는 걸 보거나, 때로는 큰 대문 밑 그림자에 웅크려 햇빛을 무척이나 두려워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그 뿐만이 아니었다. 어떨 때는 산 속 법사의 등에 매달려 있거나, 어떨 때는 성 안에서 궁녀의 머리카락에 매달려 있는 걸 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악마들 중 우리 관심을 제일 모은 것은, 어느 귀한택 공주님의 가마 지붕 위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는 악마였었다.

고사본을 적은 자는 이 악마 이야기를 우루간의 풍유, 즉 우화를 통한 가르침이라고 해석했다. ——노부나가는 한 때 그 공주님을 연모하여, 기어코 자기 뜻대로 따르게 하려고 했다.

허나 공주도, 그 공주의 양친도 노부나가의 바람을 기꺼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루간은 공주를 위해 악마 이야기를 지어내 노부나가의 폭주를 타이른 것이라는 듯 하다. 이 해석의 옳고 그름은 애초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무엇이 옳다 단정 지기엔 쉽지 않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엔 어느 쪽이든 별로 상관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루간은 어느 저녁, 남만사 문 앞에서 그 공주님의 가마 위에 악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허나, 이 악마는 보아왔던 그것들과는 달라, 보석 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팔짱을 낀 모양새며, 고개를 떨군 모양새며, 마치 뭔가 깊게 고민하는 듯 하지 않겠는가.

우루간은 공주님의 신변이 염려되기 시작했다. 양친과 함께 열렬한 천주교 신자일 터인 공주님이 악마에게 홀리다니, 예삿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바테렌은 가마 쪽에 다가가 곧바로 영험한 십자가의 힘을 내뿜더니 손쉽게 악마를 붙잡았다. 그 다음 그 녀석을 남만사 안의 신을 모시는 내전에 목덜미를 붙잡고 끌고 왔다.

내전에는 주님 야소=키리스토의 성화 앞에, 촛불이 그을름을 내며 타오르고 있었다. 우루간은 성화 앞에 악마를 꿰려 앉히고, 왜 네가 공주님의 가마 위에 타고 있었는지 그 연유에 대해 이야기 하라고 캐물었다.

"저는 그 공주님을 타락시켜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타락시키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청정한 영혼을 본 뒤로, 어찌 지옥의 불길에 데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영혼을, 그 아득한 푸르름을 구름 한점 없이 지키고 싶다고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허나,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리어 타락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다. 제 두 마음 사이를 헤매이며, 저는 그 가마 위에서 절절히 저희들의 운명을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지만 않았더라면, 당신 기척을 느끼기 전에 아마 땅속 깊이 몸을 숨겨서, 이런 고초를 겪는 일은 없었겠지요. 우리 악마들은 이런 놈들인겁니다. 타락시키고 싶지 않은 만큼 더더욱 타락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런 기묘하고 묘하고 괴로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슬픔에 곱씹을 때 마다 전에 본 천국의 찬란한 빛도, 지금 보는 지옥의 암흑도 이 작은 가슴 속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부디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너무나 외로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한 악마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

고사본에 적힌 이 전설은 이 악마의 자취를 자세히 적어두지 않았다. 허나,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읽고 나서 무언가 느낀 것이 깊게 가슴에 남았다면 그걸로 그만.

.....

우루간이여. 악마와 함께 우리들을 가엾게 여겨주오. 우리도 그것들과 같은 슬픔을 품고 있나니.

저본 : 지쿠마 전집류취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전집 제4권 지쿠마쇼보「筑摩全集類聚 芥川龍之介全集第四卷」筑摩書房

1971 (쇼와46) 年6月5日초판제1쇄발행

1979 (쇼와54) 年4月10日초판제11쇄발행11

입력 : 츠치야 타카시(土屋隆)

교정 : 마츠나가 마사토시(松永正敏)

2007年6月26日작성

아오조라 문고 작성 프로필 :

이 파일은, 인터넷 도서관, 아오조라 문고(靑空文庫) (<http://www.aozora.gr.jp/>) 에서 만들었습니다. 입력, 교정, 제작해주신 분들은, 봉사자 여러분입니다.

번역 : 박민주 (pmj970@gmail.com)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다이쇼 시대에 활동했던 소설가이자 번역가이다. 합리주의와 예술지상주의를 표방한 사람이었으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젊은 나이에 요양 중 자살로 삶을 마감해 문단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그의 생동감 넘치는 나생문, 지옥변 등의 글들은 아사히 신문 선정 지난 1천년간 일본 최고의 문인에서 5위에 들 만큼 일본이 사랑받고 있다.

"악마"는 학자나 이야기꾼으로 보이는 화자가 누구에게 전해주는 듯 이야기가 시작된다. 덤덤히, 관심없는 듯 흘러가듯 이야기 하면서도 곧 자세하게 이야기 하며, 곧 자신도 악마의 고충을 품은 사람으로서 바테렌 (포르투갈어로 선교자, 신부라는 뜻) 우루간에게 악마를 위령하듯 자신을 위로해주길 바라며 이야기가 끝난다.

사람은 저마다의 고충을 안고 살아간다. 그 고민이 너무 무거워 나를 짓누르기 전에 저마다의 바테렌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자신을 토닥여 주길 바라본다.